러셀 웨스트브룩, NBA '새 역사' 썼다
통산 트리플-더블 1위

▲ 러셀 웨스트브룩. 사진=페이스북 (Russell Westbrook)

러셀 웨스트브룩(워싱턴 위저스)이 NBA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웨스트브룩은 10일 애틀랜타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NBA 정규시즌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중반 트리플-더블을 완성했다. 3쿼터까지 17점 11어시스트 7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던 웨스트브룩은 4쿼터 리바운드 10개를 채우며 기록을 완성했다.

이날 트리플-더블을 기록함에 따라 웨스트브룩은 통산 182번째 트리플-더블을 달성했다. 이는 기존 오스카 로버트슨의 기록(181개)을 넘어선 역대 1위의 기록이다.

웨스트브룩은 전반에 이미 12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리바운드 수치가 도무지 늘지 않으며 기록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듯 보였다. 하지만 4쿼터에 6개의 리바운드를 추가한 웨스트브룩은 최종 기록 28득점-21어시스트-13리바운드를 기록, 트리블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웨스트브룩은 지난 2016-2017시즌 31.6점 10.7리바운드 10.4어시스트의 기록으로 자신의 첫 평균 트리플-더블 시즌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트리플-더블 적립을 시작했다. 이어진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에도 그는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3시즌을 연속해서 평균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지난 2019-2020시즌 페이스가 다소 주춤했던 웨스트브룩은 이번 시즌 워싱턴의 유니폼을 입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10일 현재 그는 22.0점 11.6리바운드 11.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미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확정한 상태다.

웨스트브룩의 대기록 작성에 NBA 스타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역대 최고의 포인트가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매직 존슨은 "오스카 로버트슨을 넘어서고 역대 트리플더블 1위에 올라서다니, 정말 대단해." 라며 웨스트브룩의 대기록 작성에 감탄했다. 전 NBA 선수 제이슨 키드 역시 "믿기 힘들 수 없다. 축하한다" 고 전했다.

이날 경기 후 같은 팀의 트레이 영은 나는 오클라호마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때 러셀 웨스트브룩을 봤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가 경기할 때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얼마나 많이 뛰는지 그저 감탄하며 바라봤다." 라며 학창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그가 세운 기록들은 그에게 큰 영광일 것이다. 웨스트브룩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라며 웨스트브룩을 추켜세웠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워싱턴 위저스는 애틀랜타 호크스에 125-124로 패했다.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프리미어골프리그

지난해 1월 미국프로골프(PGA)투어보다 더 많은 상금을 내걸고 최정상급 골프 선수들에게 참가를 권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던 프리미어골프리그(PGL)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5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연간 40개가 넘는 PGA투어 대회는 대부분 140명 안팎의 선수가 출전해 나흘 동안 치르고, 컷이 있어 자칫하면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지만 18개 대회만 개최하는 PGL은 48명의 선수가 컷 없이 사흘간 경기를 한다는 구상이다.

더구나 대회당 상금은 무려 1천만 달러에 이른다. PGA투어에서 상금 1천만 달러가 넘는 대회는 메이저대회를 빼면 몇 되지 않는다. PGL에 참가하는 48명의 선수는 더 적은 대회를 뛰면서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구조다.

그러나 PGL은 그러나 곧바로 닥친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대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진데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상당수 정상급 선수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하는 듯했다.

그런데 PGL에 돈을 대는 투자자들이 최근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브룩스 켑카, 필 미컬슨(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 유명 선수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PGL 측은 2022년 9월에 PGL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들 선수에게 참가를 권유하고 이들에게 연간 3천만 달러의 수입을 '보장'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PGL의 돈줄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졌다.

2019년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을 창설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상금보다 더 많은 초청료를 지급하면서 더스틴 존슨과 미컬슨 등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은 PGA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본부' 를 차려놓고 선수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PGA 남자골프 세계 1위 더스틴 존슨. 사진=페이스북(Dustin Johnson)

이에 PGA투어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는 "PGL에 참가하면 PGA투어에서 영구 제명하겠다." 며 강력 대응했다. 인기가 높은 선수들이 PGL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단속' 에 나선 것이다.

선수들은 PGL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웨브 심프슨(미국)은 "PGA투어 정상급 선수는 돈이 궁한 게 아니다. 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온 PGA투어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추구한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말했다.

PGL이 출범해도 라이더컵이나 프레지던츠컵, 그리고 세계랭킹 포인트 등 PGA투어와 유러피언투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 세계 골프 '생태계' 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도 선수들이 PGL 참가를 꺼리는 이유라고 골프다이제스트는 분석했다.

한편 PGL에서 거액을 제안받았다고 보도된 존슨, 켑카, 미컬슨의 에이전트는 골프다이제스트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업소명(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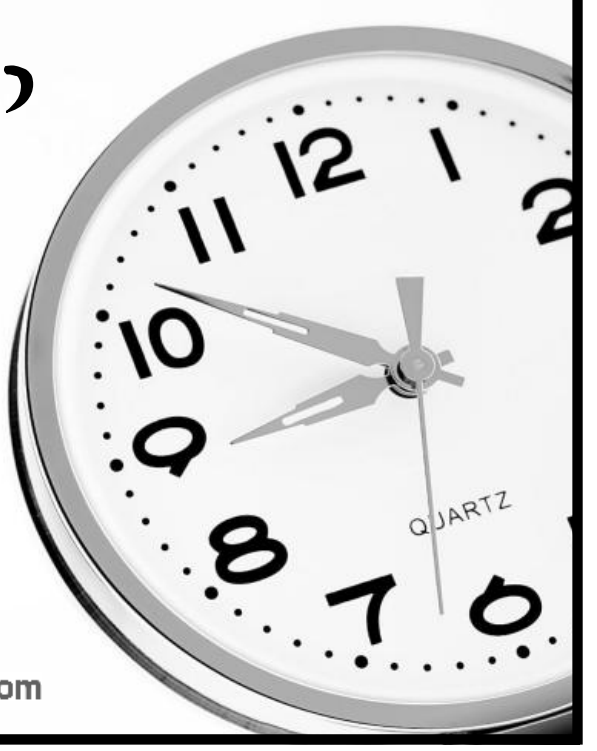
주소:

(영문):

City State Zip

업종: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